

상실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인연은 싹트고...



13 회암사(海), 풍함도 멸함도 없는 곳

임자년 가을에는 지공(指空) 스님이 지시한 "삼산 양수지간(三山兩水之間)에서 주석하라"는 기별이 우연히 생각나서 곧 회암사로 이석(移錫)하려 했는데, 때마침 왕의 부름을 받아 회암사 법회에 나아갔다. 여기에 주거(住居)해 달라는 청을 받았다. 스님이 이르기를 "선사(先師)인 지공 스님께서 일찍이 이 절을 중창하려고 계획 했는데 병화(兵火)로 불타버렸으니 감히 그 뜻을 계승하지 않겠는가?" 하고, 이에 대중 스님과 협의해 전당을 확장해 공사가 모두 끝나고 병진년 4월에 크게 낙성법회를 열어 회향했다. 이때 대평(臺評)이 유생의 입장에서 불교의 왕성(旺盛)함을 시기에 말하기를 "회암사는 서울과 매우 가까운 거리이므로 청신사와 청신녀들의 오고감이 계속 이어져 밤낮으로 왕래가 끊이지 않아 혹은 지나치게 맹신(盲信)해 생업을 폐하는 지경에 이르니 금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 했다.

회암사 오른쪽 능선에 삼화상(三和尙-지공 나옹 무학)의 부도와 탑비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옹 선사의 탑비(선각왕사비, 보물 제387호)는 왼쪽 능선에 서 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하지만 알 길이 없습니다. 1377년(고려 우왕 3)에 세워졌던 '선각왕사비'는 1997년 3월 성묘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에 비와 비각이 훼손돼 귀부만 남은 자리에 1999년 8월 다시 세운 것입니다.

왕의 인용 구절은 그 비문의 일부입니다. 회암사의 중창불사 규모와 나옹 선사의 당시 지명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문장입니다.

비문 속의 임자년은 1372(고려 공민왕 21)년인데, 나옹 선사는 그 한 해 전에 공민왕의 왕사로 책봉됐습니다. 왕사의 신분으로 회암사에 들렀다가 스승인 지공 선사의 유지를 생각하고 회암사를 크게 중창하게 된 사연입니다.

지공 선사는 원나라의 법원사(法源寺)에서 나옹 선사에게 말합니다. "네가 귀국 하거든 삼산(三山)과 양수(兩水)가 합친 중간 지점에 마치 인도의 아란원사(阿蘭院寺, 나란타사)와 꼭 같은 터가 있으니 그곳에 절을 지으라"고 지시한 일이 있습니다. 나옹 스님은 1347년 원나라로 귀부의 길을 떠났다가 다음 해에 원나라 법원사에서 지공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에서 선기가 성성한 문답이 오고 갔고 인도의 선사는 고려의 구법승을 제자로 인가하여 불사를 부촉한 것이니 불법의 전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임을 느끼게 합니다.

인용한 비문에 의하면 회암사 중창불사는 병진년, 그러니까 1376년(우왕 2)에 완성이 됩니다. 5년간에 걸친 공사를 회향하는 마당에 유생들이 '불교의 왕성함'을 시기에 나옹 선사를 모함하게 됩니다. 왕도 어쩔 수 없이 불사의 회향을 앞두고 나옹 선사의 거



지공 선사 탑·석등·부도



나옹 선사 탑비



무학 선사 부도와 석등

처를 밀양 땅으로 옮기게 하고, 가는 도중에 병을 얻은 나옹 선사는 여주 신록사에서 입적하게 됩니다. 비문에는 나옹 선사가 회암사를 떠나는 장면도 묘사해 있습니다.

'스님의 가마가 열반문을 통과할 때 모든 대중이 무슨 이유인지 의심하면서 실성 통곡하므로, 스님께서 돌아보시고 말하기를 "노력하고 또 거듭 노력해 나로 인해 슬픔에 잠겨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나는 마땅히 여주에서 그칠 뿐이다"라 고 했다.'

나옹 선사는 자신이 회암사를 떠난 뒤에도 대중들이 정진과 불사를 계속할 것을 주문하면서 신록사에서 입적할 일까지 미리 예고했던 것입니다.

목은 이색이 지은 나옹 선사의 비문은 회암사 말고도 여주 신록사 석종 옆에도 있습니다. 북한 지역인 영변 안심사에는 지공스님과 함께 묘신 사리석종이 조성했는데 탑비는 역시 목은이 지었습니다. 부도의 맞은편 능선에 지키고 서 있는 새로 조성된 탑비는 뒤편 과거의 탑비를 없앴던 귀부와 매우 어색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씨 하나를 잘못 간수해 나라의 보물을 태워버리는 어리석음이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회암사 경내를 지나 삼화상의 부도가 모셔진 능선으로 오릅니다. 제일 위쪽에 나옹 선사의 부도와 석등이 있습니다. 팔각원당형을 기본으로 하는 이 부도는 1376년 나옹 스님의 입적 직후에 조성된 것이 아니라 1821년에 이응준에 의해 훼손된 것을 1828년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때문에 양식적인 면에서 매우 간소화 됐고 비율도 그리 훌륭한 편이 아닙니다. 앞에 문묘한 사각형 상석이 놓여 있고 그 앞에 석등이 서 있습니다. 상석이나 석등 역시 모양새가 매우 단조롭고 간결합니다. 원래의 탑비는 지역의 토호인 유학자에 의해 훼손됐고 나라는 불교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니 급하게 조성한 탑비가 간결하고 균형을 잃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삼화상의 부도탑비 수난의 역사 그대로 보여줘 지공·나옹 선사 부도 19세기 다시 건립... 상석 등 유교 영향 받은 듯 무학 왕사 부도 난간 속에 모셔진 독특한 양식 눈길

다. 그래서 지금은 보물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0호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 아래 위치한 지공 선사의 부도와 석등 역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9호인데, 나옹 선사의 부도와 엇비슷한 양식입니다. 부도가 맨 뒤에 서 있고 앞에는 4각형의 상석이 놓여 있으며 그 앞에 왕룡의 장명등을 연상케 하는 석등이 서 있습니다. 그 아랫단에 탑비가 서 있고 옆에는 원래의 탑비를 없앴던 몸돌을 잃은 귀부가 망연한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지공 선사는 인도의 제108대 조사입니다. 인도 마가다국 만왕(滿王)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왕자이며 8세 때 나란타사 율현(律賢)을 스승으로 계를 받았으며 나란타 대학의 마지막 졸업생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변성했던 나란타사가 이슬람교도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기능을 상실한 시기의 승려인 지공 선사가 중국으로 발길을 옮긴 것입니다. 1326(충숙왕 13)년 고려 땅에 처음 들어와 2년 반 정도를 머물렀는데, 금강산에서 양산 통도사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참배를 하고 정진했습니다. 그 과정에 지공 선사는 회암사를 거쳐 갔고 지형이 나란타사와 유사해 회암사를 크게 중창하려는 발원을 했고 그 발원은 제자인 나옹 선사로 인해 이루어진 셈입니다.

원나라에서 1363년 입적한 지공 선사의 영골과 사리가 고려에 전해진 것은 7년 뒤입니다. 공민왕이 친히 원릉사에서 모셨으며 다시 나옹 스님이 1372년에 회암사에 부도를 세워 안장했던 것입니다.

나옹 선사나 지공 선사의 부도가 다시 세워진 것

이 19세기 후반인 점을 감안해 보면, 고려시대까지의 부도 앞에는 대개 상석이 없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유학을 숭상하는 조선 시대에 제례문화가 발달하면서 부도에도 제사를 모시는 도구인 상석이 자연스럽게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도는 묘탑이므로 당연히 제사를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 시대의 사고(思考)였겠지만, 생사를 초월한 자리에서 진리를 구하고자 했던 선의 황금시대, 신라말에서 고려대에 이르는 때와는 엄청나게 달랐다 불교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맨 아래 위치한 무학 왕사의 부도는 매우 화려합니다. '양주 회암사 무학왕사 홍융탑'이란 이름의 이 부도와 그 옆을 지키고 서 있는 쌍사자석등은 보물 제388호와 389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부도와 석등은 이응준의 횡포를 당하지 않고 원형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선 태조는 왕사인 무학 선사의 부도답을 입적 전에 준비했습니다. 무학 선사는 1405년에 입적했고 부도는 8년 전인 1397년에 조성해 두었으며 입적 2년 뒤인 1407년에 사리를 부도에 안치했던 것이니 태조는 그만큼 왕사를 존경했던 것입니다.

부도의 양식은 팔각원당형을 이었는데 등근 탑신에 새겨진 용무늬는 아주 걸작입니다.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듯 생생한 조각이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부도는 이전 시대와 달리 돌로 만든 팔각의 3단 난간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의 모습이 절반 정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장대석으로 쌓은

난간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태조의 존경심이 그렇게 나타났을 수도 있고 이후 시대의 사조(思潮)가 역불승유로 급격히 흐르고 불교가 압박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은 1620년에 조성된 봉인사불사리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쌍사자석등은 화사석과 지붕돌이 단순한 조형인데 비해 중대석을 쌍사자로 화려하고 흰차게 묘사했으며 하대석에는 8개의 연꽃잎을 새겼습니다. 연판 모서리에는 고사리 모양의 영기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라 이후 고려를 거쳐 조선으로 이어지는 석등의 양식을 보여준다는 것이 학자들의 시각입니다.

현재의 부도탑비는 후대에 다시 조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옆에 탑신받침고 이수로 보이는 석재 일부가 몸돌을 잃은 허허모름을 가득 안고 놓여 있습니다.

회암사와 회암사에는 운통 상실의 시간이 들어차 있습니다. 한 때의 번성이 오랜 시간의 폐허로 남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가 아닐까. 그러나 역사의 인과 관계는 시공을 초월해 생명을 이어 갑니다. 나란타사의 영광이 허물어지는 것을 지켜 본 지공 선사가 이어만리 고려에 나란타사와 같은 대찰을 건립하고자 발원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흥함은 흥함이 아니고 멸함도 멸함이 아니라는 것이겠습니다. 흥하고 멸하는 그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중생의 마음에는 흥함도 없고 멸함도 없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문제일 뿐.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기본정보자료
<역대고승비문>시리즈, 이지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도> 정영호, 대원사.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엄기표, 학연문화사. <전통사찰총서> 사찰문화연구원. <갑사행의 길잡이> 한국문화유산연구소, 돌베개. <동사열전> 김윤세 역, 광재원. <잊혀진 가람탐험> 정지현, 역시이문. 등.

전선(케이ابل)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범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정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ابل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ابل**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도**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육바리일 만월등(육바리일 주름등) 팔각봉촉접등 종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영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